

JSC 회사소개

주식회사 JSC는 Breaker를 전문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. 생산은 모기업인 지성중공업에서 하고 있습니다.

지성중공업에서 분사 후 약 15년간 미국, 캐나다, 유럽 등을 포함해서 30여개국에 브레이커를 수출하고 있으며, 각 국가별 Distributor 및 파트너가 있습니다.

Volvo Region Asia와는 2022년 5월부터 양사간 브레이커 파트너십을 위한 준비를 하여 2023년 1월 V-series Breaker를 Launching 및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당사의 Breaker의 Production Capacity는 월간 300대, 연간기준 4,000대 수준 [300 units/month, 4,000 units/year]이며, 납기는 발주 후 5주 정도되며, 국내고객의 경우는 주요 모델(4Ton 및 14Ton)의 경우는 재고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고객의 빠른 납기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

V-series Breaker의 장점은 크게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

- 가격 경쟁력
- 짧은 납기
- 안정된 품질
- 다양한 모델군 (3개타입, 45개 모델)

국내시장의 주요 고객은 굴삭기 임대 사업자, 토목 및 부동산 개발회사 및 광산업체 등이며, 주로 Side Type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

기존 국내시장의 일반 고객은 EC300은 V-48 (30Ton) / EC380 – V55(40Ton) / EC480 – V75(50Ton) / EC750 – V100 (75Ton) 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

국내 시장의 대형 장비의 경우는 구매 결정 시 타격력이 우수한 제품, 신속한 A/S, 합리적인 가격 및 지불조건 및 부품 공급의 신속성 등에 의해 결정이 되며, 국내 시장은 매우 단단한 암반으로 타격력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 시장이기에 해외보다는 한단계 더 큰 브레이커 장착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.